

인생은 길고 수익모델은 무한하다



임경수 교수의 라이프로그 디자인

문득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를 그냥 스쳐지나갈까? 그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이거면 돈 좀 되겠는데'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쫓기고, 의지를 단단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아이디어들은 모두 사장되고 만다. 이렇게 소멸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훨씬 윤택해졌을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업은 이렇게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앱스토어를 보자. 그 또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우리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앱스토어 창안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최초 발의자는 스티브 잡스가 아닌 애플의 직원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수익모델로 전환하고, 사업화하는 능력인데 스티브 잡스는 그러한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 아이디어는 밤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지만 그 것을 돈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핵심과정이 수익모델화 작업이다.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수익모델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부를 일굴 수 없다. 따라서 창업은 수익모델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누가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부의 파동이 달라질 것이다.

수익모델(또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름)은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이다. 수익모델이 없는 사업은 그야말로 양꼬 없는 찌빵이다. 한마디로 수익모델이 곧 돈이다. 아직 사업화되지 않은 수익모델도 기업사냥꾼의 먹이가 될 정도다. 창업은 수익모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99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호세(San Jose)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인 피에르 오미디아르(Pierre Omidyar)가 옥션웹(AuctionWeb)을 창업했다. 그는 결합이 많은 레이저 포인터를 첫 품목으로 내놓았는데 14.83달러에 팔려나갔다고 한다. 그 비결은 인터넷 경매에 있었다. 판매자가 판매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니즈를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구매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구매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매가가 올라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이후로 공동구매, 가격비교 구매, 역경매 등 신종 수익모델이 불티나게 팔렸다.

10년이 훨씬 지난 2007년엔 백수 생활을 즐기던 젊은이들이 또 시장의 판을 바꾸었다.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머물던 월셋집을 빌려주고, 아침식사까지 제공하는 일이었다. 동갑내기 친구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가 저지른 일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라는 수익모델로 관광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우버의 공유택시, 소카의 차량공유, 패스트파이브의 공유오피스 등 온갖 공유모델로 확장되어 발전했다.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은 강물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강물을 퍼다가 상품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도 돈을 벌었다. 목표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교묘한 지략을 펼친 것이 그의 수익모델이었다. 그 옛날부터 오늘날까지도 인생은 길고 수익모델은 무한하다. 문제는 스쳐 지나갈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수익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역량에 있다.

/임경수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자지원센터장

금융교육, 늦었다고 생각될 때 정말 늦었을 수 있다



김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나라는 경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금융교육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선진화된 경제 흐름을 제대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 적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금융교육은 교과 내용 중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 경제, 기술·가정 등 과목으로 따로 분류되지도 않은 채 어떠한 과목 내에서 단원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사회 교과가 선택 교과가 되기 때문에 미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금융교육학회에서 2019년 발표했

던 '한국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과 결정요인'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며 향상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됐다. 논문은 성인 대상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을 때, 금융교육의 존재감이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 연구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999년부터 미국 의회는 조기 금융교육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재무부에 '금융교육국'을 신설해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신학기부터 고교 공식 교육과정으로

금융교육을 포함시켰다. 일본의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주식투자·펀드·부동산 등의 금융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게 된다. 이 밖에도 다수의 선진국에서 조기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어쩌면 올해 4월 발생한 SG(소시에테 제네랄)발 주가폭락 사태의 근원지였던 차액결제거래(CFD)와도 연관성이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 단톡방 내에서는 반대매매에 대한 설명이 더러 오고갔다. 피해자 중 일부는 반대매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개인 투자자)가 140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졌지만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폭 넓은 경제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고, 그것은 금융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이 주목받게 되길 바란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1일 (음 10월 9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벌을 두려워하고서는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즉 현실을 받아들이자. 48년생 말에게 쥐를 잡게 한다면? 6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음주 주의. 72년생 부부가 열음과 숯의 차이 같다. 84년생 집안 청소로 집안 분위기를.
- 소** 37년생 재혼자와의 깔끔한 포기가 필요. 49년생 겨울은 절대 먼저 옷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리자. 6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73년생 실패는 좋은 경험일 될 수 있다. 85년생 긴밤이 지나면 이른 아침이 오게 마련이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진행. 50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62년생 내일의 일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 74년생 뒷사람을 탓하지 말고 서류를 다시 살펴라. 86년생 문서는 번여해 비옥이 되다.
- 토끼** 39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조금씩. 51년생 나의 인생이니 내 탓 말고 공부하라. 63년생 머리가 혼란하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라. 75년생 낙심할 것 없도록 기회는 다시 주어진다. 87년생 거짓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말** 40년생 오후 매출이 오른다. 52년생 부모님 산소를 돌보지 못하는 심정. 64년생 괴테는 아니지만 친환경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76년생 청약을 오늘이라도 신청하도록. 88년생 약자를 표방하는 감언이성이 나를 슬프게 한다.
- 뱀** 41년생 재산증여는 신중하게. 53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주의. 65년생 세월이 지나니 모든 것이 흐지부지 사랑도 마찬가지. 77년생 믿어주는 이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성공. 89년생 아픈데 다시 다른 병이 발병.
- 말** 42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상대를 설득시키자. 54년생 어린 사람과 닮음이 생기니 말조심. 66년생 조상님 제사에는 참석해야 기운이 들어온다. 78년생 술을 넘치도록 마시지 말라. 90년생 오래 사는 태양이 결혼하고 나니 고향 같다.
- 양** 43년생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보니 능률이 두 배. 55년생 신세를 진 사람이 빚을 갚으려 오는 날. 67년생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시작하자. 79년생 들어가자마자 불평만. 91년생 고서를 보고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뒷사람은 경계하라.
- 원숭이** 44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56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68년생 사랑 태연은 시간 낭비로 결국 우울감만. 80년생 언제나 오늘만 같았으면. 92년생 부모님이 부자가 되었으나 교만을 멀리하라.
- 닭** 45년생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남은 시간 후회하지 않는다. 57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가 온다. 69년생 가정의 화목이 언제나 고맙다. 81년생 업무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실천하라. 93년생 복이 너무 지나치면 꼭 재앙이 생김.
- 개** 46년생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58년생 살아보니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단발이다. 70년생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그물을 먼저 준비. 82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마음에. 94년생 수없이 부도가 났으나 조상님 덕에 재소생.
- 돼지** 47년생 신용을 지키는데 상대가 미흡하면 중지. 59년생 돈을 얻기 위해 하나를 양보. 71년생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83년생 과정을 중시해야 결과도 얻는다. 95년생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고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

김상회의四季 이현령비현령의 터

어느 거리를 자주 지나다 보면 업종이 수시로 바뀌는 점포를 볼 수 있다. 떡집이 새로 들어오는 걸 봤는데 몇 달 지나니 핸드폰 가게로 바뀌어 있다. 또 몇 달 뒤에는 분식집이 문을 열더니 어느 날 다시 작은 커피점으로 또 다른 가게가 되는 식이다. 그런 곳은 특징이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다.싼 임대료에 끌려서 누군가 들어오지만 역시 문을 닫고 만다. 개점과 폐업을 반복하는 자리가 주인이 장사를 못 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터가 좋지 않거나 터의 입장에서 그곳의 주인 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해보자. 꽃이 작아 열매의 결실이 보잘것없게 된다. 그럴 때 가지나 이파리에만 거름을 준다고 열매가 풍성해지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땅을 파서 거름을 줘야 할 것 아니겠는가. 즉 업종 변경으로 인테리어만 바꾼다 해서 그 터의 기운이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임대료는 그 값을 한다고 하는데 풍수에서는 그런 터에는 임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싸게 나온 집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그 집에 살던 사람마다 흉사가 있었다면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나쁜 기운은 생각보다 강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그 기운 지신地神을 이기기가 힘들다. 사주가 좋다고 해도 맞지 않는 그곳에 자리 잡으면 풍파에 시달린다. 반면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집은 화재 사고를 겪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재물도 일궈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 경우는 그 터의 기운이 확 바뀌어야만 할 때 일어나기도 하는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종교적 과학적 실체적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 하지 않던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1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